

1996年 國內經濟 展望

林 宙 煥

(韓國銀行 調査第1部 經濟調査課長)

1. 1995年 經濟動向

1995년중 우리 經濟는 상반기중 9.8%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9% 가까운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年間 成長率이 9.3%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高成長은 주로 輸出과 設備投資의 높은 신장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우선 商品輸出(불변가격 기준)은 세계경기의 호조와 엔貨 強勢의 효과로 상반기중 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또한 設備投資도 내외수요의 확대에 부응한 生産能力擴張投資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반기중 22%나 증가하였으나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그 동안의 왕성한 투자활동에 힘입어 설비 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民間消費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호황으로 民間의 購買力이 증대됨에 따라, 建設投資는 非住居用建物 및 社會間接資本의 건설이 회복됨에 따라 각각 지난해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産業別로는 상반기중 10%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인 製造業과 서비스業이 전체성장을 주도하였다. 특히 製造業의 경우 경쟁력이

약화된 輕工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重化學工業의 급성장으로 生産指數가 1~9월중 13.3%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同 기간중 平均稼働率이 83%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생산활동의 호조로 就業機會가 확대됨에 따라 失業率은 전년의 2.4%에서 2.0%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對外去來를 살펴보면 輸出(통관 기준)은 반도체, 자동차, 화공품 등 重化學工業製品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輕工業製品도 전년보다 활기를 띠며 따라 1~10월중 34%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33%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地域別로는 동남아, 중국 등 開發途上國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對先進國 수출도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輸入(통관 기준)은 내외수요의 호조로 原資材, 資本財 및 消費財가 모두 크게 늘어나 1~10월중 36%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34% 정도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貿易收支 赤字規模는 전년의 32억달러에서 5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貿易外 및 移轉收支는 운수관련경기 및 기술용역대가의 지급 증가 등으로 赤字規模가 전년(14억달러)의 배가 넘는 35억달러 내외에 달

〈표-1〉 주요경제지표 추이

	1992	1993	1994	1995		
				상반	1~9월	연간e)
경제성장률 (%)	5.1	5.8	8.4	9.8	-	9.3
제조업생산지수 ¹⁾ (%)	5.9	4.2	11.0	13.1	13.3	-
제조업평균가동률 (%)	79.7	79.2	82.7	83.0	82.7	-
실업률 (%)	2.4	2.8	2.4	2.1 ⁴⁾	2.0 ⁴⁾	2.0
경상수지 (억 달러)	-45.3	3.8	-45.3	-59.7	-81.3	-85.0
무역수지	-21.5	18.6	-31.5	-43.1	-50.8	-50.4
수출 ²⁾	766.3	822.4	960.1	582.6	1,019.4 ⁵⁾	1,273.0
	(6.6)	(7.3)	(16.8)	(33.3)	(34.0)	(32.6)
수입 ²⁾	817.8	838.0	1,023.5	652.6	1,114.3 ⁵⁾	1,369.0
	(0.3)	(2.5)	(22.1)	(37.8)	(35.6)	(33.8)
무역외·이전수지	-23.8	-14.8	-13.9	-16.6	-30.4	-34.6
소비자물가상승률 ³⁾ (%)	6.2	4.8	6.2	4.7	4.5 ⁵⁾	4.6
생산자물가상승률 ³⁾ (%)	2.2	1.5	2.8	5.1	4.9 ⁵⁾	5.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통관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기간중 평균치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4) 계절변동조정

5) 1~10월중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經常收支赤字規模는 85억달러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物價 면에서는 消費者物價가 대체로 연중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生産者物價는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우선 消費者物價는 年平均 4.6% 정도 상승하여 지난해에 비해 오름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價格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급등하였던 農産物價格이 안정을 되찾은 데다 工業製品價格도 市場競爭의 심화 등으로 상승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生産者物價는 國際原資材價格의 상승과 엔화 강세에 따른 對日 輸入價格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5% 정도 상승하여 전년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992년 이래 하락세를 지속해 온 토지, 주택 등 不動産價格은 1995년 중에도 대체로 保合勢를 유지하였다.

2. 1996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內外 經濟與件

가) 海外經濟與件

1996년중 世界經濟는 先進國이 안정성장을 지속하고 開途國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 동안 體制轉換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던 舊東歐圈도 플러스의 성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금년과 비슷한 4% 내외의 높은 成長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경제를 전망해 보면 우선 美國은 1994년을 頂點으로 한 景氣鎮靜局面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금년 중에도 景氣沈滯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최근 발표된 財政擴大政策의 시행에 힘입어 내년에는 景氣回復勢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獨逸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減稅措置로 민간소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994년

이래의 回復勢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世界交易 신장률은 경기진정국면에 들어선 美國의 輸出入物量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낮아지겠지만 開途國의 고성장 및 域內交易의 증가 등으로 6%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엔貨는 상반기중에는 美달러貨에 대해 소폭의 弱勢基調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美國이 日本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의 安定成長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인위적으로 엔貨 強勢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美國의 基礎經濟與件(economic fundamentals)이 대규모 쌍둥이 적자 지속 등으로 내년에도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日本이 본격적인 景氣回復段階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엔貨가 다시 強勢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國金利를 비롯한 國際金利는 내년 중에도 대체로 下向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日本과 獨逸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들어서는 金利가 완만하나마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國際原油價格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非OPEC 產油國의 증산 등에 따른 공급물량 확대로 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其他原資材價格도 선진국의 안정성장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체로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 國內經濟與件

우리 경제는 1993년초부터 금년까지 景氣上昇勢를 지속하였으나 1996년은 循環周期상 收縮期에 해당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활동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호황기 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輕工業을 중심으로 中小企業의 經營隘路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후퇴 속에서도 물가 면에서는 그 동안의 고용성장에 따른 超過需要壓力의 顯在化 가능성, 총선거를 앞둔 인플레이션 期待心理 재연 가능성, 地方自治團體의 재정 확충을 위한 公共料金현실화 등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에도 資本自由化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外資流入이 크게 늘어날 경우 통화, 금리, 환율 등 巨視政策變數의 운용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밖에 金融面에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시행의 영향으로 금융시장간 자금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1996年 經濟展望

가) 經濟成長

1996년중 우리 경제는 民間消費와 建設投資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設備投資와 輸出의 신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成長率이 7.4%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함께 失業率은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중 우리 경제를 需要部門別로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民間消費는 경기하강과 함께 신장세가 점차 낮아지겠으나 그 둔화폭은 크지 않아 연간 7.5%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3년초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 상승국면 지속에 따른 所得水準의 향상으로 민간의 購買力이 이미 상당히 커진 데다 景氣에 1~2분기 정도 後行하는 소비의 특성상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더라도 그 영향으로 消費가 둔화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時差가 있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設備投資는 엔貨의 약세 전환 및 경기하강국면 진입 예상 등으로 증가율이 7.2% 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建設投資는 土木建設이 공공부문의 사회간접 자본 건설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활기를 띠에 따라 전체적으로 7%臺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建物建設은 금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未分讓住宅이 14만 세대를 상회하는 등 住宅建設景氣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나) 國際收支

1996년중 輸出(통관 기준)은 세계교역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엔화의 약세 전환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價格競爭力이 약화되고 금년중의 급신장에 따른 反落效果도 일부 가세하여 증가율이 16%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輸入(통관 기준)도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資本財와 原資材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13% 정도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消費財輸入은 꾸준한 소비수요 증가와 수입자유화폭 확대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輸出보다 輸入이 더욱 큰 폭으로 둔화됨에 따라 貿易收支 적자규모는 3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貿易外 및 移轉收支는 운수관련경비 및 대외이자지급의 꾸준한 증가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6년중 經常收支는 64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物價

1996년중 消費者物價는 元貨切上趨勢의 지속, 並行輸入制의 실시 등 물가하락요인과 公共料金の 인상, 그 동안의 고율성장에 따른 超過需要壓力의 현재화, 그리고 총선 실시에 따른 인플레이션 期待心理 등 물가상승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평균 4.8%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品目別로 보면 工業製品價格은 수입자유화, 규제 완화,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價格競爭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非交易財的인 특성상 超過需要壓力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운 서비스價格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년중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生産

〈표-2〉 1996년중 경제전망

	1994	1995e)	1996e)
경제성장률 (%)	8.4	9.3	7.4
총 소비	7.0	7.5	7.0
(민간)	7.4	8.1	7.5
고정투자	11.7	12.3	7.5
설비	23.3	17.0	7.2
건설	4.6	8.9	7.7
상품수출	14.6	26.6	14.1
상품수입	22.0	23.2	14.4
경상수지(억달러)	-45.3	-85.0	-64.0
무역수지	-31.5	-50.4	-30.0
무역외·이전수지	-13.9	-34.6	-34.0
소비자물가상승률 ¹⁾ (%)	6.2	4.6	4.8
생산자물가상승률 ¹⁾ (%)	2.8	5.0	3.2

주: 1) 연평균 기준

者物價는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상승률이 3.2%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不動産價格의 경우 住宅賣買價格은 未分讓住宅 적체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나 土地價格은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본격화 등 다소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2월의 土地綜合電算網 완비, 7월의 不動産實名制 실시 등을 감안할 때 不動産價格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政策對應方向

1993년 1월을 底點으로 장기간에 걸친 확장세를 이어온 국내경기는 1996년중에는 하강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3底好況期가 끝난 후 成長率이 11%臺에서 6%臺로 크게 낮아지고 1990년대의 제5순환기(1989년 8월~1993년 1월)의 경우에도 경기가 收縮期로 접어들면서 成長率이 9% 수준에서 5% 정도로 급락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경기후퇴기에는 成長率의 鈍化速度가 매우 완만하여 潛在成長率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景氣軟着陸(soft-landing)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년중에는 景氣 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對内外 不平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1996년중에는 經常收支 적자규모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경기하강에 따른 輸入需要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輸入依存的 構造가 개선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내년중 消費者物價豫想上昇率 4.8%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先進國은 물론 주요 競爭相對國의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이 國內外市場에서 競爭力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는 物價安定基調를 정착시킴으로써 對内外 不均衡을 해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화, 재정 등 巨視經濟政策手段을 經濟安定化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人力需給의 원활화 및 임금안정, 소비의 건전화 및 부동산투기의 지속적 억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微視的 安定化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